

# K-WISC-III Profile을 통한 영재아의 인지특성 분석

대전영재교육학술원 길 경 숙

본 연구는 영재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최신 개정판인 K-WISC-III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능검사결과 130이상의 상위 2% 이내로 대상아동을 선별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적 특성의 차이와 영재만의 특별한 프로파일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K-WISC-III가 영재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일차적으로 변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한지를 알아보고, 더불어 영재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이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의 일반적 특성에서 영재아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부의 경우 대학원 졸업, 모의 경우 대졸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는 부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경우 주부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둘째, 영재아의 언어성 지능점수와 동작성 지능점수에서 성별과 연령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영재아 전체의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재아의 소검사별 점수에서 상식, 이해, 공통성, 토막짜기, 어휘가 다른 소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성별·연령에 따른 소검사별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재아의 사회인지기능에서 다른 인지기능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영재아의 추상적 사고기능에서는 성별에 따라 토막짜기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체 영재아의 추상적 사고기능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여섯째, 영재아의 4요인 지표에서 언어이해능력이 지각조직능력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주의집중이나 처리속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의 일반적 특성에서 영재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위층 집단임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육의 기회와 경험의 기회가 많은 상위계층에서 우수한 아동이 배출되며,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은 영재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수 있으므로써 잠재능력의 발현에 기여된다는 점이다. 즉 타고 태어난 영재아라 하더라도 교육의 기회와 잠재

능력 실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영재성은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재아에 대한 이론적 특성 개념 즉 “영재아는 지각조직능력에 비해 언어적 능력이 우수하다”, “영재아는 추상적 사고기능이 뛰어나다”, “영재아는 사회인지기능이 다른 인지능력에 비해 적은 편이다”같은 특성이 영재아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아닌 실제로 영재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점을 밝혀낸 점과 더불어 영재아동의 사회인지기능 계발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영재교육현장에서 사회·정서성 계발이 가정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재아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셋째, K-WISC-III 지능검사가 영재아를 판별해 내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으나, K-WISC-III를 통한 영재아 연구가 미비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후연구가 이루어져 소검사별 인지특성을 바탕으로 영재아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적 프로그램과 사후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영재아들의 인지적 특성 프로파일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획득된 지식을 반영해 주는 하위 소검사 요인들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영재아들이 원래 지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습득된 지식이 또래 아동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재아의 교육에서도 조기교육환경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수혜자가 초등 고학년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영재아동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영재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사례가 특정기관에 내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소수의 사례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영재아동의 특징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며 사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파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